

싱가포르의 사회통합교육¹⁾

- 도덕과교육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추 병 완(충천교육대학교 교수)

《 요 약 》

이 논문은 다문화 사회 기반 구축을 위한 한 방안으로서 싱가포르의 사회통합교육의 사례를 분석해보고, 우리나라 도덕과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었다. 싱가포르의 사회통합교육은 국가 차원에서 싱가포르가 지향해야 할 이념과 가치들을 분명히 설정하고, ‘국민교육’과 ‘공민과 도덕교육’을 통해 그러한 이념과 가치들을 체계적으로 구현하고 있다는 점, 다양성을 보장하고 인정하면서도 사회통합을 강조함으로써 통합성 안에서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 싱가포르의 사회통합교육 체제로서 ‘국민교육’과 ‘공민과 도덕교육’은 국가 정체성 함양을 위한 충분한 교육 시수와 더불어 통합적 접근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 사회적 응집성 제고를 위해 싱가포르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공통의 다문화적 유산을 사회통합교육의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다는 점 등에서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의 도덕과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주제어 : 국민교육, 공민과 도덕교육, 다문화교육, 다문화주의, 도덕과교육, 싱가포르

I. 머리말

오늘날 인류는 국가 간 인구 이동이 일상화되고 보편화된 ‘이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세계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주 문제는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지구공동체의 보편적인 의제이다(오경석, 2007, p. 22). 우리나라의 경우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저출산·고령화 추세, 국제결혼의 증가, 다국적 기업 및 사업 관리 계층·기술 인력의 증가, 교육 부문 외국인 종사자의 증가,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북한 이탈 주민 증가 등의 여러 가지 요인들은 한국 사회를 다문화·다문화 사회로 급격하게 변모시키는 중요한 작동 기제가

1) 이 논문은 2009년 8월 7일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다시 작성한 것임을 밝힙니다.

다. 다문화·다문화 사회 속에서 사회적 다수와 사회적 소수 혹은 기존 시민과 새로운 이주자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 구성의 원칙을 찾는 일은 한국 사회의 당면 과제로 부각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우리나라 교육계에서는 다문화교육에 주목하고 있다.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며, 편견과 차별을 줄임으로써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에 대처하면서 사회통합을 추구할 수 있는 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이다. 다문화 민주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은 학교교육을 통하여 구성원들이 문화공동체, 국민국가, 그리고 지구공동체에 대하여 균형 있고 사려 깊은 애착심과 일체감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세계사적인 시대 조류는 다문화적 시민성(multicultural citizenship)을 갖춘 시민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가의 구성원들이 다문화 세계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나라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함은 물론 생존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것이 분명하다(추병완, 2008b, p. 56).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그 동안 단일민족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민족 동질성에 기초한 단일 문화 중심의 교육적 배경 속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타문화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은 상대적으로 강한 반면에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다문화적 인성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최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9. 2, p. 1)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국제 결혼가정 자녀를 친구로는 받아들일 수 있으나 가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같은 반 친구, 단짝, 연인, 결혼 상대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질문한 결과, 같은 반 친구로 받아들이겠다는 응답은 전체의 44%로 비교적 높은 비율이었으나, 단짝이 될 수 있다는 응답은 30%, 연인이 될 수 있다는 응답은 18%,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응답은 14.8%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38%는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초등학생들은 북한이탈주민보다 백인이 더 '우리 집단'에 가깝다고 응답하여 커다란 충격을 던져주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싱가포르의 아시아의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에 속한다. 다인종·다언어·다문화 사회인 싱가포르는 사회통합교육을 통해 인종 간의 긴장과 갈등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해 오고 있다. 특히 학교 교육과정은 언어교육을 중시하여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필수 언어로 하며 자신의 모국어, 즉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중 1개를 선택해 배우게 하는 이중 언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영어는 서구 기술과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주기 위함이고, 모국어는 민족문화와 정체성의 보존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싱가포르에서 시민교육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경제성장과 사회의 통합과 안정을 이룩하는 주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다인종·다문화·다종교 사회의 특징을 가진 싱가포르는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사회 통합을 중시하는 학교교육을 통하여 세계 제일의 시민의식을 가진 국가로 성장하였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통합의 한 방편으로서 다문화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짐과 동시에 외국의 교육 사례들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논의들이 대부분 북미와 유럽 자료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같은 아시아 문화권이면서 다문화 국가인 싱가포르의 사회통합교육 현황을 분석하는 것은 다문화 시대에 대비하는 우리의 교육 체제를 정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의 상호 이해 증진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에 여기서는 세계화·정보화·다원화 시대 조류 속에서 최근 싱가포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통합교육 체제를 분석하고, 우리의 도덕과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다문화적 시민성 함양을 위한 싱가포르의 교육 정책

1. 다문화적 시민성의 개념 및 필요성

이주의 시대에 있어서 세계 각국은 사회통합이라는 공통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민 국가에게 주어진 과제 가운데 하나는 다양한 집단을 구조적으로 포용하여 그들이 충성심을 느낄 수 있는 국가를 건설하는 동시에, 해당 집단이 고유의 문화를 보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성과 통일성 간에 정교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민주 국가의 사회통합에 있어서 핵심 목표가 되고 있다. 국가는 사회통합에 있어서 국민들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성과 통일성의 조화를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 정의, 평등, 인권 존중과 같은 민주주의적 가치를 중심으로 통합을 이룰 때만이, 국가는 소수 집단의 권리를 보호하고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문화적 민주 사회의 시민들은 국가 수준에서 공유되는 문화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소속 공동체의 문화에 대한 애정도 간직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성이 결여된 통일성은 문화적 억압과 헤게모니로 귀결된다. 통일성이 결여된 다양성은 분파주의와 균열을 야기한다. 다양성과 통일성은 다문화적 국민 국가 내에서 정교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통합의 이념형에 비추어 볼 때, 21세기에 요구되는 새로운 시민성의 유형은 바로 다문화적 시민성(multicultural citizenship)이다. 다문화적 시민성은 자신의 민족적·문화적 공동체와 국민 문화(national civic culture) 양자에 대한 헌신을 유지하려는 시민의 권리와 욕구를 인정하고 정당화한다. 국가의 국민 문화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민족·인종·언어·종교 공동체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형되었을 때에만 모든 시민들로부터 정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야만 시민들은 국가와 국가의 이상에 대한 명료화된 헌신을 발전시킬 수 있다.

즉, 다문화적 시민성이란 문화 다양성과 입헌 및 담론민주주의에 고유한 개념·가치·신념·행동 패턴들을 이해하고 그것에 기반을 둔 민주적인 대화를 통하여 자신이 속한 문화를 구성하고 공통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시민의 자질을 말한다. 이렇게 볼 때 다문화 사회에서의 사회통합교육은 소수 문화 집단들이 지닌 나름의 정체성과 경계를 인정하는 동시에 ‘진정한 하나’(authentic unum)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적 시도로서, 다문화적 시민성의 함양을 궁극 목표로 삼는다(추병완, 2008a, p. 321).

2. 다문화적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 정책의 전개 과정

1990년대 후반 이후 싱가포르의 일련의 교육 개혁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적 자원 양성 방안을 내어 놓았는데, 이러한 정책 속에서 다문화적 시민성의 함양을 목표로 하는 사회통합교육 내용이 매우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싱가포르는 다양한 집단의 전통적인 문화적 가치들을 유지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싱가포르인들을 결속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민족적·문화적·종교적으로 다양한 집단들을 통합하는 목적을 가진 사회통합교육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공동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신들의 언어를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시행되고 있다. 즉, 싱가포르는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영어를 매개로 교육체제를 운영하면서도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다문화적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이 기본적으로 각 집단의 모국어를 통해서 시행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교육 개혁 정책에 반영된 사회통합교육의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싱가포르 정부는 국가 이데올로기를 확립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다섯 개의 가치를 국가적 가치로 선정하였고 이 가치들은 1993년 1월 15일에 의회에서 국가의 ‘공유된 가치’(shared values)로서 공식 채택되었다. 국가 이데올로기로서의 다섯 가지 공유된 가치들은 학교교육의 이데올로기적 내용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Quah, 1999, pp. 117-120).

첫 번째 가치인 ‘공동체 이전에 국가, 그리고 자신보다는 사회’(nation before community and society above self)는 싱가포르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사회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 앞에 놓는 것이 성공의 주된 요소이며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더 큰 성공을 가져온다는 것을 잘 말해 준다.

두 번째 가치인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의 가족’(family as the basic unit of society)은 모든 주요 신앙들이 가족의 신성함을 강조하고 가족은 더 큰 사회구조가 안정되게 형성될 수 있게 만드는 근본적인 틀이라는 점에서 중요시된다.

세 번째 가치는 ‘개개인을 위한 공동체의 지지와 존중’(community support and respect for the individual)인데 이것은 첫 번째 가치를 통해 전체를 강조하는 동안 개인이 존중되어야 하고 그들이 가볍게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권리를 가진다는 인식으로부터 나온다. 즉 이 가치

는 다른 하나에 불이익을 주면서 하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 간에 하나의 균형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에서는 부를 만들고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돌보아야할 뿐만 아니라 부를 공정하게 그리고 널리 분배하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나 자유시장체제에서 소외된 사람들도 돌보아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고 한다.

네 번째 가치인 ‘갈등이 아닌 합의’(consensus, not conflict) 역시 첫 번째 가치에서 강조된, 사회를 개인의 앞에 놓는 생각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가치는 쟁점을 해결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위한 과정에서 다수에 의한 합의를 개발하는 것과 다양한 견해들의 타협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적 통합이라는 중요한 자산을 위해 서로의 차이를 조정하고 타협하려는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가치는 ‘인종적, 종교적 조화’(racial and religious harmony)인데 싱가포르와 같은 다인종·다종교사회에서 이러한 조화는 국가 번영에 근본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다양한 공동체가 조화롭게 함께 살지 않으면 다수의 공동체인건 소수의 공동체인건 그들이 했던 대로 번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렇듯 ‘공유된 가치’는 인종적·종교적 조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국가 통합 및 발전을 위해 서로의 차이를 조정하고 타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가족을 중시하는 가운데, 개인보다는 사회 우선, 공동체 보다는 국가 우선의 가치관을 갖게 함으로써 싱가포르 국민으로서의 국가 정체성 함양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1997년 싱가포르 교육부는 ‘생각하는 학교, 학습하는 국가’(Thinking Schools, Learning Nation)를 국가의 교육 비전으로 선언하였다(박효종, 2001, p. 80). 이것은 싱가포르가 생각하고 헌신하는 시민 그리고 가족·사회·국가에 대한 책임 있는 시민을 기르고자 하는 국가의 교육 비전을 담아낸 것이다. ‘생각하는 학교, 배우는 나라’는 한 마디로 말해서 학생, 교사, 부모, 노동자, 회사, 공동체조직, 그리고 정부를 포함하는 전 학습 환경을 위한 비전이다. 이 비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생각하는 학교’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습을 위한 열정과 교사의 역할을 강조한다.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는 학습조직의 모델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교사와 교장들이 새로운 생각과 실천을 위해 늘 탐구하고 연구할 것을 권장하며, 그들이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 해결책을 고안할 수 있도록 학교에 더 많은 자율권을 주고자한다.

한편 ‘배우는 나라’는 학교와 교육기관을 넘어서서 학습을 싱가포르의 국가적인 문화로 만들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취학 아동의 계발, 혁신을 장려하는 것, 노동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강조되었다. 미취학 아동의 계발을 돕도록 부모들을 훈련시키고, 양질의 미취학 아동 교육을 위해 교육 담당자들을 훈련하고 돕는 것, 조직체의 개개인 모두가 조직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사회의 모든 단계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것, 그리고 정상에 있는 사람들만이 생각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지시대로 따르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늘 개선을 추구하며 무엇이 자신이 하는 일의 목적인지, 또 그 목적을 달성할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를 묻는 자세를 통해 국가적 수월성을 높이도록 요구하는 것 등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였다. 한편 싱가포르의 2003년에 위의 비전과 함께 교사와 학생에게 ‘혁신과 진취적인 정신 고양’이라는 또 다른 교육 비전을 부가하였다.

1999년에 21세기의 싱가포르의 비전을 밝히는 ‘싱가포르 비전 21’ 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21세기에도 기존에 존중되어온 이상들, 즉 실력사회, 인종간의 조화, 강한 리더십, 그리고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정부 등이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재확인되었다. 보고서는 미래사회의 변모를 반영하여 기존의 이상에 덧붙여져야 할 다섯 가지 새로운 이상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Singapore Vision 21 Committee, 1999, pp. 11-15): ① 모든 싱가포르인이 중요하다(Every Singaporean matters). ② 우리의 토대이자 미래인 강한 가족(strong families). ③ 모두에게 주어지는 기회(opportunities for all). ④ 싱가포르의 정서(Singapore heartbeat)-싱가포르에 대해 열정적으로 느끼기. ⑤ 적극적인 시민(active citizens)-차이를 만들기.

이러한 다섯 가지 이상은 인종·민족·문화의 다양성에 상관없이 모든 싱가포르 국민들이 소중한 존재이기에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 싱가포르를 열정적으로 사랑함과 동시에 싱가포르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싱가포르의 토대이자 미래를 가정에 뒀으로써 개별 민족·인종·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08년 싱가포르 교육부는 ‘기대하는 결과’(desired outcomes)라는 새로운 교육 비전에서 교육을 통해 개인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 양자를 성취하고자 함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이에 의하면 교육은 두 가지를 수행해야 하는데 하나는 개인을 발달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을 교육하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Ministry of Education, 2008, p. 1). 첫째, 교육은 전인적인 아동을 육성하는 것이다. 여기서 전인적인 아동은 전통적인 아시아적 교육 개념이다. 즉, 교육은 아동을 도덕적·지적·신체적·사회적·심미적으로 발달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교육받은 사람은 자신·가족·친구에게 책임 있는 사람인 동시에 공동체와 국가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사람이다. ‘기대하는 결과’는 개인적 측면에서는 전인의 형성을, 그리고 시민적 측면에서는 싱가포르를 알고 신뢰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육성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다문화 국가인 싱가포르가 추구하는 사회통합의 이상을 잘 나타내준다. 학생들이 소정의 교육의 마친 후에 보여주어야 할 교육 결과를 싱가포르 교육부는 <표 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1〉 기대하는 결과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옳음과 그름을 안다. • 기꺼이 공유하고 순서를 지킨다. • 타인과 관계할 수 있다. • 호기심이 있고 탐색할 수 있다. • 경청할 수 있고, 이해하여 말할 수 있다. • 만족하고 행복해할 줄 안다. • 신체적 협동작용을 발달시키고 건강한 습관을 가진다. • 가족·선생님·유치원을 사랑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옳음과 그름을 식별할 수 있다. • 타인과 공유할 줄 알고, 타인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 타인과 우정을 돈독히 할 수 있다. • 사물에 대해 활발한 호기심을 갖는다. • 스스로 사고하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 자신의 일에 대해 자긍심을 갖는다. • 건강한 습관을 개발한다. • 싱가포르를 사랑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덕적 성실성을 가진다. •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갖는다. • 팀을 이루어 일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의 기여를 소중하게 여긴다. • 진취적이고 혁신적이다. • 후속 교육을 위한 폭넓은 기초를 다진다. • 자신의 능력을 신뢰한다. • 심미적 평가력을 지닌다. • 싱가포르를 알고 신뢰한다.

이렇듯 다민족·다인종 국가로서의 싱가포르는 적극적인 사회통합교육 정책의 실행을 통하여 다양성과 통일성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즉, 이중 언어 정책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능력에 따른 교육으로 개인적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전체 인구의 싱가포르화(化)를 추진하고 싱가포르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심을 갖도록 하고 있다. 즉, 싱가포르의 사회통합교육은 국민들로 하여금 다문화적 시민성을 함양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Ⅲ. 싱가포르의 사회통합교육 체제

싱가포르에서의 사회통합교육은 범교과적이고 총체적 교육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국민교육(National education)과 교육과정의 공식적 교과인 ‘국민과 도덕교육’(Civics & Moral Education)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싱가포르의 사회통합교육 현황을 ‘국민교육’을 통한 사회통합교육과 ‘국민과 도덕교육’을 통한 사회통합교육으로 대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국민교육’을 통한 사회통합교육

1996년 9월 8일 교사의 날 집회에서 고촉통(Goh Chok Tong) 수상이 교육체제에서 국민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발의를 표명한 이후, 국민교육위원회(National Education Committee)는 학교와 제3의 기관들에서 국민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방법들을 제시하였다(박효중, 2001, p. 76).

싱가포르 교육부에 의하면 국민교육은 홀리스틱(holistic) 교육의 일부이다. 국민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의 정식 교과는 아니지만,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교육 경험을 가로지르는 우선적인 주제로서 학교 교육과정에 포괄적으로 용해되어 있다. 국민교육은 국민의 연대감을 계발하고, 국민으로서의 생존 본능을 함양하며, 싱가포르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국민교육은 싱가포르에 대한 소속감과 정서적 일체감을 함양시키는 것을 강조한다. 즉, 국민교육은 그 자체로 독립된 교과는 아니지만, 사회과(social studies), 공민과 도덕교육(Civics and Moral Education), 역사(History), 지리(Geography) 등 가치교육에 관련된 모든 학교의 교과들에 그것의 메시지가 주입되도록 계획되어 있다.

싱가포르 정부가 국민교육을 강조하는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즉 싱가포르 정부는 국민교육을 통하여 국민으로서의 공통의 기반을 구축하고, 싱가포르의 과거·현재·미래를 연결하며, 미래를 위한 준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²⁾ 즉, 싱가포르 정부는 국민교육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시도하는 것이다. 민족·인종·문화·종교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그러한 다양성을 가로지르는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회통합교육 방안이 바로 국민교육인 셈이다.

국민교육은 다음의 네 가지 목표를 통해서 국민의 단결과 미래에의 생존과 자신감을 위한 본성을 개발하려는 국가적 노력이다: ① 싱가포르인으로서의 정체성, 자부심, 자존감을 육성하기, ② 싱가포르의 역사-싱가포르가 국가를 형성하는데 있어서의 장애들에 맞서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알기, ③ 다른 나라로부터 구분시켜주는 싱가포르 고유의 도전, 제약 그리고 취약점들을 이해하기, ④ 지속적인 성공과 복지를 보장해줄 삶의 방식의 핵심적 가치와 승리하려는 의지를 가르치기.

이러한 목표를 통해서 국민교육은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① 싱가포르는 우리의 모국이다. 싱가포르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다. 우리는 우리의 유산과 우리의 생활방식을 지속하기를 원한다. ② 우리는 인종적이고 종교적인 조화를 보존해야만 한다. 많은 인종, 종교, 언어, 문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의 운명을 추구한다. ③ 우리는 실력사회(meritocracy)와 부패 없음(incorruptibility)을 유지해야만 한다. 이것은

2) 이하의 내용은 싱가포르 교육부가 운영하는 국민교육 홈페이지(www.ne.edu.sg)에서 내용을 발췌한 것임(최종 검색일 2009년 10월 30일).

각자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모두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어느 누구도 싱가포르에 생계를 빚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생존과 번성을 위한 우리 자신의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⑤ 우리는 싱가포르를 지켜야만 한다. 그 외의 어느 누구도 우리의 안보와 번영에 책임이 있지 않다. ⑥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다. 일치단결하고 잘 준비하여 우리는 우리 힘으로 밝은 미래를 건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교육은 여섯 가지의 기본 원칙을 준수한다: ① 국민교육은 총체적 교육의 일부분이다. ② 국민교육은 우선적으로 교사와 학생들에게 주입되어야 한다. ③ 국민교육은 모든 교사들을 포함해야만 한다. ④ 국민교육은 마음과 정신 모두에 호소되어야만 한다. ⑤ 국민교육은 사고력을 계발해야만 한다. ⑥ 국민교육은 사회에 의해 강화되어야만 한다. 즉, 싱가포르 교육부는 특히 학생들에게 국민적 천성(national instincts)을 길러주기 위해 장기적인 두 개의 접근법을 채택하였다. 하나는 싱가포르가 직면한 현실·상황·기회를 올바르게 인식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확신과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마음과 정신의 결합’이라는 표현에서 잘 드러나듯이 지역 사회와 국가에 대한 감정적 소속감과 결단력을 계발하는 것이다. 즉, 학생들이 확신과 현실감을 갖고 그들의 미래를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싱가포르가 직면하고 있는 사실, 상황, 기회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접근과 더불어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할 때라도 살아남아서 싸울 수 있도록 공동체와 국가에 대한 감정적 귀속감과 헌신의 마음을 개발하는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2007년 국민교육 위원회는 ‘head, heart, hands framework’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국민교육이 이성, 감성, 실천의 조화 속에 이루어짐을 강조한 것이다. 동시에 머리, 가슴, 손은 연령에 따른 교육의 강조점을 드러낸 것이다. 초등학생들은 싱가포르를 사랑하도록(Love Singapore) 장려되고, 중등학생들은 싱가포르를 알도록(Know Singapore) 교육되며, 대학생들은 싱가포르를 이끌도록(Lead Singapore) 권고된다. 달리 말해, 초등학생에서는 가슴, 중등학교에서는 머리, 대학교에서는 손이 국민교육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운데 원은 국민교육이 질을 추구하고(quality), 주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ownership),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customization)을 나타낸 것이다. 끝으로, 맨 바깥 원의 학교, 학생, 지역사회는 국민교육의 보급과 관련된 핵심 당사자들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Head, Heart, Hands Framework

이러한 국민교육은 네 가지의 주요한 프로그램, 즉 핵심 사건, 지역사회 관여 프로그램, 학습 여행, 국민교육 퀴즈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먼저 국민교육은 핵심 사건(core events)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학교는 싱가포르 역사상 중요한 사건이었던 4개의 사건을 필수적으로 기념하도록 되어 있다. 1942년 싱가포르가 일본에 함락된 날을 기념하기 위한 Total defense day(2월 15일), 싱가포르와 인접 국가 및 여타 국가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International friendship day(2학기 셋째 주 금요일), 1964년 인종 폭동을 기념하는 Racial harmony day(7월 21일), 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하여 독립 국가를 수립한 날을 기념하는 National day(8월 9일)로 이루어져 있다.

지역사회 관여 프로그램(community involvement program)은 사회적 응집성과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고양하기 위해서 실시된다. 지역사회 관여 프로그램의 핵심은 봉사활동 학습(service learning)에 있다. 봉사활동 학습은 실제적인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도전적인 과제에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목적으로 한다. 학생들은 그들이 배운 지식을 사회의 실제적인 문제 해결에 활용해 보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지적·도덕적·시민적 성장을 위한 경험학습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학습 여행은 교육 경험을 확대하고 풍부하게 하기 위해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떠나는 여행으로서 다음의 네 가지 기준 가운데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장소로 여행을 떠나야 한다: ① 싱가포르의 업적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장소 ② 싱가포르가 처한

계약, 도전, 기회 등 싱가포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장소 ③ 미래에 대한 확신을 길러 주는데 도움을 주는 장소 ④ 싱가포르가 조국임을 인식시켜 줄 수 있는 장소.

국민교육 퀴즈는 국민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지식과 이해를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교육 퀴즈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등학교 4학년까지의 모든 학생들(외국인 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국민교육 퀴즈는 CD-ROM형태로 제공되어 일종의 컴퓨터 게임 형식을 취한다. 이것은 국민교육이라는 다소 딱딱한 주제를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학습하도록 해 주기 위한 교육적 배려에서 나온 것이다. 초등학생은 ‘Operation Labyrinth game’을 중등학생은 ‘The Nation Builder game’을 하도록 되어 있다. 퀴즈 문항들은 시민성과 시민적 준비, 국민의 신분, 상징, 유산, 통치, 도전 등 여섯 가지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퀴즈 문항들은 선다형이나 짝짓기로 되어 있으며, 4단계의 난도로 되어 있다. 즉, 1개의 기본 수준과 3개의 고급 수준으로 되어 있다. 기본 수준은 10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3개의 고급 수준은 각기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퀴즈에 통과하려면 학생들은 최소한 기본 수준 10문항 가운데 8문항 이상을 맞추어야 한다. 퀴즈에 통과하면 학생들은 ‘lieutenant’라는 지위를 얻게 된다.

2. ‘공민과 도덕교육’을 통한 사회통합교육

싱가포르에서 사회통합교육은 ‘공민과 도덕교육’이라는 교과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공민과 도덕교육’은 1992년에 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로서 처음 등장하였다(박효종, 2001, p. 69). 공민과 도덕교육은 도덕교육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싱가포르 정부가 중시하는 ‘공유된 가치’와 ‘국민교육’의 이상을 교과 내용으로 반영하고 있는 특징을 갖는다(추병완, 2008b, p. 65). 싱가포르의 ‘공민과 도덕교육’ 교과는 다민족·다문화·다종교적 사회 배경 속에서 실시되고 있고, 다양성과 통일성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다문화 시대에서의 사회통합교육의 전형적인 모습을 잘 보여준다.

초등학교 1-4학년까지는(4년 기초과정) 모국어 학습이 ‘공민과 도덕교육’을 포함하는데 평균적으로 4년 동안 교육과정의 27%가 모국어에 할애되고 초등학교 5-6학년에서는(2년 준비과정) 모국어와 별도로 ‘공민과 도덕교육’이라는 과목이 마련되어 있다. 초등학교에서 ‘공민과 도덕교육’은 모국어교육과 함께 실시되기 때문에 ‘공민과 도덕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모국어 교사이다. 만일 내가 인도인으로서 타밀어를 선택하면 나는 타밀어를 배우면서 인도의 문화와 가치를 타밀어 교사에게서 배우는 것이다. 한편 중등학교에서는 ‘공민과 도덕교육’을 위한 전담교사가 없고 담임 교사가 가르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초등학교와 달리 중등학교와 중등학교 이후 단계에서 ‘공민과 도덕교육’은 모국어로만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영어가 주된 교육수단으로 사용된다. 그 이유는 일단 모국어 교사의 수가 부족하고 영어와 다른 3개 국어로 교육과정 자료를 준비해야만 하는 것의 비실용성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2006년 교수요목(syllabus) 개정을 통해 다문화 공존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한 형태의 사회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새로운 교수요목은 2007년부터 1-2학년에 적용되었고, 2008년에는 3-4학년, 2009년에는 5-6학년에 적용되었다(추병완, 2008b, p. 65). ‘공민과 도덕교육’ 교과는 1-3학년에서 2시간, 4-6학년에서 주당 3시간씩 모국어 교사를 통해 가르쳐지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는 새로 개정된 ‘공민과 도덕교육’ 교수요목에 나타난 싱가포르 사회통합교육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싱가포르에서 ‘공민과 도덕교육’은 한 마디로 말해 학생들을 건전한 도덕적 원리에 정박시키기(anchoring) 위한 목적으로 계획된 교과다. 싱가포르 교육부는 ‘공민과 도덕교육’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학생들이 도덕적으로 강직하며 현대 사회에서 도덕적 가치의 적절성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은 그들의 가치를 효과적인 방식으로 실천하기 위한 사회적·감정적 능력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치와 능력을 구비하는 것은 학생들이 그들에게 가용한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준다. 시민으로서 우리의 젊은이들은 싱가포르에 대한 소속감을 계발하고 싱가포르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가치들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07, p. A-2).

‘공민과 도덕교육’의 우선적인 목적은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 즉 배려적이고 자신·가족·학교·공동체·국가·세계를 향해 책임 있게 행동하는 사람을 육성하는 것이다. 즉, ‘공민과 도덕교육’의 교육 목적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만들어내는데 있는 것이다(Ministry of Education, 2007, p. A-3).

- 나는 누구인가?
 - 나의 가치와 신념은 무엇인가?
 - 나의 가치와 신념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러한 목적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 미래를 대비하여 나 자신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 나를 타인과 환경에 어떻게 관계시키고 있는가?
- 나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 나의 가족에서?
 - 내가 사는 지역사회에서?
 - 내가 사는 국가에서?
 - 세계 속에서?
- 국민으로서 우리는 누구인가?
 - 우리의 국가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인가?
 - 국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 세계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몫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가?

이처럼 싱가포르의 ‘공민과 도덕교육’은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개인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중시하면서도, 국가 정체성의 강조를 통해 다민족·다문화·다종교 사회에서 다양성과 통일성의 조화를 이루며, 다문화적 시민성을 갖춘 인간을 육성하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민과 도덕교육’은 학생들이 훌륭한 인격을 갖추게 하는 목적(goal)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도덕적 지식, 도덕적 감정, 도덕적 행동과 연관된 적절한 지식, 기능, 태도를 획득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도덕적 지식, 도덕적 감정, 도덕적 행동을 위한 ‘공민과 도덕교육’의 목표(objective)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목표는 ‘공민과 도덕교육’ 교과를 이수한 학생들이 보여주어야 할 도덕적 지식, 도덕적 감정, 도덕적 행동 측면에서의 목표를 의미한다(추병완, 2008b, pp. 69-70).

먼저 도덕적 지식을 위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옳음과 선함을 알 수 있다. ② 건전한 도덕적 원리를 공식화한다. ③ 건전한 도덕적 결정을 내리는 것과 관련된 원리들을 안다. ④ 가정의 중요성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이해한다. ⑤ 도덕적 결정을 내릴 때 다양한 관점을 고려한다. ⑥ 타인의 관점을 고려할 때 개방적이며 비(非)판단적이다. ⑦ 결정을 내릴 때 도덕적 추론과 비판적 사고를 실행한다. ⑧ 사회적 응집성을 유지할 필요성과 인종적·종교적 조화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⑨ 우리가 공유한 가치와 싱가포르의 가족 가치를 포함하여 국가의 번영에 필수적인 가치들을 안다. ⑩ 지역사회, 국가, 세계 속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안다.

도덕적 감정을 위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도덕적 가치를 지지하고 실천할 진정한 신념과 결단력을 개발한다. ② 자신의 감정을 통하여 자신의 가치와 행동을 명료화할 필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의식적으로 도덕적 입장을 취할 수 있다. ③ 도덕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타인의 감정을 고려한다. ④ 자아성찰과 같은 개인내적 기능을 개발한다.

도덕적 행동을 위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자신의 결정과 행동을 도덕적 지식과 감정에 정초한다. ② 선한 가치를 실천한다. ③ 도덕적 행동의 일관된 실행의 결과인 도덕적 습관을 발달시킨다. ④ 훌륭한 사회적 기능과 의사소통 기능을 함양한다. 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 ⑥ 다인종적·다종교적 사회에서 조화와 사회적 응집성을 촉진시킨다.

이렇게 볼 때, 싱가포르의 ‘공민과 도덕교육’은 인격 형성을 위한 교육과정 구성에 있어서 슈버트(Schubert)의 사회적 행동주의(social behaviorism)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격 형성을 위한 교육과정 접근법으로서 사회적 행동주의는 한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도덕성의 구성 요소들을 밝히고, 그 구성 요소들을 행동적 목표로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도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과 능력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도덕성을 지닌 사람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인격 특성이나 덕들을 명료화하고, 그것들을 목표·내용·방법·평가 등 다루기 쉽고, 분석 가능하며, 측정 가능하고, 의도했던 결과들을 나타낼 수 있는 행동적 목표들로 표현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한다(추병완, 2004, p. 15). 싱가포르의 ‘공민과 도덕교육’은 도덕성의 구성 요소를 존중, 책임, 성실, 배려, 쾌활, 조화의 여섯 가지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그러한 가치들을 도덕적 지식·감정·행동의 측면에서 ‘공민과 도덕교육’이 의도했던 결과들을 나타낼 수 있는 행동적 목표들로 표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민과 도덕교육’의 목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은 싱가포르가 문화적 다원주의와 사회 통합을 조화시키려는 구체적 목표들과 가치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민과 도덕교육’의 목표에서 “사회적 응집성을 유지할 필요성과 인종적·종교적 조화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그리고 “다인종적·다종교적 사회에서 조화와 사회적 응집성을 촉진시킨다.”는 표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도덕교육에서 문화적 다원성의 존중과 사회적 통합을 동시에 이루려는 시도를 엿볼 수 있다. 싱가포르는 국가 구성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공통의 다문화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가치들, 즉 자신보다 상위에 있는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봉사, 상이한 문화 인정, 가족 유대의 중요성, 효도·책임, 사회 속의 연장자 존중 및 배려, 젊은 세대 양육, 검약, 근면, 권위 존중, 사회 질서에 대한 신념과 같은 가치들을 교수요목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응집성을 제고하고 있다. 덧붙여, 개인 및 사회생활에서 민족적·문화적·종교적 다원성을 인정하지만, 더 큰 집단인 국가에 대한 헌신과 애국심을 강조함으로써 다문화적 시민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개정된 ‘공민과 도덕교육’의 내용 체계는 싱가포르의 공유 가치(Our shared values), 싱가포르의 가족 가치(Singapore family values), 싱가포르 비전 21(Singapore vision 21), 국민교육(National education) 내용을 보완하고 강조해 주는 여섯 가지의 핵심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07, p. A-5). ‘공민과 도덕교육’의 내용 체계에서 강조하고 있는 여섯 가지의 핵심 가치는 다음과 같다: ① 존중(respect): 자신만의 자아 가치 및 모든 인간의 본래적 가치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을 때 개인은 존중을 드러낸다. ② 책임(responsibility): 책임 있는 사람은 자신, 가족, 지역사회, 국가, 세계에 대한 의무를 갖고 있음을 인정하고 사랑과 결단력으로 자신의 책임을 완수한다. ③ 성실(integrity): 성실한 사람은 윤리적 원리를 지지하고, 옳은 것을 고수할 용기를 갖고 있다. ④ 배려(care): 배려적인 사람은 친절함과 동정심을 갖고 행동한다. 그는 지역사회와 세계의 보다 나은 발전에 기여한다. ⑤ 쾌활(resilience): 쾌활한 사람은 정서적 강점을 갖고 있고 도전에 직면하여 견뎌낼 줄 안다. 쾌활한 사람은 용기, 낙관론, 적응력, 기지를 드러낸다. ⑥ 조화(harmony): 조화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적 일치를 촉진시킨다. 조화로운 사람은 다문화사회의 일치와 다양성을 감지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06, p. A-6).

이러한 여섯 가지의 가치들은 ‘공민과 도덕교육’의 중요한 학습 내용이 된다. 싱가포르에서는 초·중등학교에서 여섯 가지의 핵심 가치들을 공통으로 가르치고 있다. 학년별·학교급에 따라서 학습 내용의 깊이와 범위만 달라질 뿐 동일한 가치를 나선형적 원리에 입각하

여 가르치고 있다. 싱가포르 교육부는 교수요목을 통해 각각의 가치들에 대하여 주제(topic)와 학습 목표, 범위, 개념·관련 가치·메시지를 제시함으로써 하나의 가치가 어떻게 학습되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개념·관련 가치·메시지’를 통하여 학습 주제가 다른 핵심 가치, 관련 개념, 그리고 싱가포르의 정책 강령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초등학교 1-4학년에서는 존중의 가치와 관련하여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기’라는 주제를 학습하도록 되어 있다. ‘공민과 도덕교육’ 교수요목에서는 이 학습 주제가 배려와 책임의 핵심 가치들과 관계가 있다는 점, 그리고 자아 개념·자기 확신·자존심·자기 존중·자아 가치·자아 인식 등의 개념과 관계가 있다는 점, 그리고 “모든 싱가포르 사람은 소중하다.”는 ‘Singapore 비전 21’ 선언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싱가포르 교육부는 ‘공민과 도덕교육’의 교수 방법과 관련하여 과정 기반 접근법에 의거하는 가운데, 제시된 여러 접근법들을 적절하게 결합하여 활용할 것을 강조한다. 먼저 ‘공민과 도덕교육’의 교수에서는 과정 기반 접근(process-based approach)이 내용 기반 접근(content based approach)보다도 선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여기서 내용 기반 접근은 사실과 정보의 학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대개 교사 중심적이다. 이와는 달리 과정 기반 접근은 학생 중심적이고, ‘무엇’ 대신에 ‘왜’와 ‘어떻게’의 학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정 기반 접근법들은 기능의 학습을 촉진시키고, 행동을 통한 가치의 내면화를 목적으로 하기에 ‘공민과 도덕교육’의 교수 방법으로서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민과 도덕교육’의 교수 방법에 있어서 문화 전수 접근법, 내러티브 접근법, 고려 접근법, 행위 학습 접근법, 인지 발달적 접근법, 수정된 가치명료화 접근법을 가능한 한 결합하여 활용할 것을 강조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07, p. A-7).

끝으로 ‘공민과 도덕교육’의 평가는 가치 전수 및 가치 학습의 복잡한 본질을 잘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공민과 도덕교육’에서 학생들은 가치와 도덕 원리에 대한 이해를 보여줄 수 있는 능력, 도덕적 추론·책임 있는 의사결정·문제 해결에 포함된 과정들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받게 된다. 또한 평가는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따라서 폭넓고 다차원적으로 계획되어 실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평가는 학기별로 A, B, C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공민과 도덕교육’에서 평가와 관련한 또 다른 사항은 형성평가의 문제이다. ‘공민과 도덕교육’은 인격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형성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형성평가의 초점은 학생들이 발달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돕는데 있다. 이것은 학습 과정이나 학생들의 자기 성찰에 대해 교사가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줄 때 발생한다. 싱가포르 교육부는 형성평가의 사례로서 포트폴리오 평가, 저널 쓰기, 학생의 자기 성찰, 역할 놀이, 프로젝트 활동, 봉사 학습을 제시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07, p. A-9). 이렇듯

‘공민과 도덕교육’에서의 평가는 지속적이고 일상적으로 그리고 다차원적인 방법에 의해 학생들을 평가하고, 평가와 학습의 연계성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IV. 싱가포르 사회통합교육의 시사점

다문화 사회에서 효과적인 도덕교육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공동체와 국가, 지역, 나아가 세계공동체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도덕적 지식·기능·태도를 가르치는 것이다(추병완, 2008a, p. 325). 이와 유사하게 다문화 사회에서 통일교육은 반세기 이상 동안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 속에서 일구어 온 상이한 문화와 이질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다문화주의적 사고·태도·행동을 발달시키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오기성, 2008, p. 137). 싱가포르의 사회통합교육 체제는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어 우리나라에서 향후 도덕교육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싱가포르는 국가 차원에서 싱가포르가 지향해야 할 이념과 가치들을 분명히 설정하고, ‘국민교육’과 ‘공민과 도덕교육’을 통해 그러한 이념과 가치들을 체계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이것은 다문화 시대에서의 도덕교육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앞으로 도덕 교과교육 학자들이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교육의 기본 아이디어들을 도덕 교과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매달리기보다는,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사회상 그리고 그러한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이념에 대한 내용들을 도덕 교과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를 먼저 형성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싱가포르는 싱가포르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싱가포르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및 자긍심을 함양시키고, 가족·공동체·국가 간의 정체성의 조화를 강조함으로써 다문화적 시민성의 함양에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 도덕 교과에서는 싱가포르의 사례처럼 학생들의 다문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과 더불어 다문화 민주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자긍심 및 애국심을 길러주는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은 최근의 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9. 6, p. 1)이 2008년 11월부터 12월 두 달간 한국, 중국, 일본의 청소년 각각 2,000여명씩, 총 6,000여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가치관 조사」를 실시한 결과, 3개국 중 한국 청소년의 국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중국·일본)에 사는 것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중국(88.9%), 일본(87.6%), 한국(66.9%)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중국·일본)인이라 자랑스러움을 느끼는가?”라는 질문에서도 중국(95.7%), 일본(76.0%), 한국(70.1%)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시 태어나면 다른 나라에 태어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대해 한국(59.9%),

중국(49.4%), 일본(38.8%)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싱가포르의 사회통합교육이 시도하는 것처럼, 다문화 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도덕과교육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 기능과 국가 정체성의 함양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싱가포르는 다문화적 시민성 함양을 위한 사회통합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전체 교육 과정에 용해되어 이루어지는 ‘국민교육’과 ‘공민과 도덕교육’이라는 별도의 교과를 통한 접근을 병행하고 있다. 동시에 그것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상당한 위상을 갖고 있다. 이것은 도덕교육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학교 전체를 통한 접근과 독립 교과를 통한 접근이 보조를 맞출 때 이상적이라는 사실을 잘 시사해 준다.

싱가포르는 ‘국민교육’을 통하여 국민으로서의 공통의 기반을 구축하고, 싱가포르의 과거·현재·미래를 연결하며, 미래를 위한 준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민과 도덕교육’을 통해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개인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중시하면서도, 국가 정체성의 강조를 통해 다민족·다문화·다종교 사회에서 다양성과 통일성의 조화를 이루며, 다문화적 시민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독립 교과로서 ‘공민과 도덕교육’은 교육과정 편제에서 생활 기능(life skills)에 초점을 맞춘 교과로 분류된다. 싱가포르의 교육과정은 생활 기능, 지식 기능, 내용 중심의 학문 교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과정의 핵심과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서의 생활 기능은 책임 있는 성인과 능동적인 시민으로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올바른 가치와 기능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싱가포르 교육의 강조점은 학생들에게 생활 기능을 익히고, 지식 기능을 습득한 후에 다양한 영역의 내용(언어, 인문학·예술, 수학·과학)에 대한 학문적 기초를 쌓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공민과 도덕교육’은 지적 기능과 학문적 내용 학습을 위한 토대 교과로서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싱가포르의 사회통합교육은 다양성을 보장하고 인정하면서도 사회통합을 강조함으로써 통합성 속에서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국민교육’이나 ‘공민과 도덕교육’ 공히 모두 모든 싱가포르 국민들은 싱가포르에 대한 소속감과 긍지를 가지며, 싱가포르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문화적 차이를 가로지르는 공통의 가치를 중시하고, 보다 상위의 공동체인 국가에 대한 헌신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것은 도덕과교육을 통해 문화적 차이를 가로지르는 보다 상위 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이나 미래의 ‘통일된 한국’을 강조하고, 그 안에서의 문화적 다양성의 제도적 보장을 통해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장차 통일 국가의 국민들은 누구나 다 소중하다는 인식을 아주 어린 시기부터 학생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도덕과교육에서는 학생들이 간문화 능력(intercultural capacity)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간문화 능력은 문화적 양식에서 자기와는 다른 의도적 소통(언어, 사인, 몸짓), 모종의 무의식적 단서(몸짓 언어), 관습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다. 간문화 능력의 강조점은 공감과 소통이다. 간문화 능력의 목표는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행동과 인지에 관하여

만들어내는 문화적으로 조건화된 가정들에 대한 자기 이해력을 발달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간문화적인 인간은 모든 인간의 통일성에 대한 지적·감정적 서약을 나타내는 동시에 상이한 문화의 사람들 간에 놓여 있는 차이점을 수용하고 인정한다(Gudykunst & Kim, 1984, p. 231).

넷째, 싱가포르의 사회통합교육 체제로서 ‘국민교육’과 ‘공민과 도덕교육’은 국가 정체성 및 다문화적 시민성 함양을 위한 충분한 교육 시수와 더불어 통합적 접근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싱가포르의 초등학교는 체계적인 다문화적 시민성 함양을 시도할 수 있는 충분한 수업 시수를 확보하고 있다. 일례로 ‘공민과 도덕교육’은 초등학교 1-3학년에서 2교시(periods), 4-6학년에서 3교시를 학습하도록 되어 있다. 초등학교 ‘도덕’의 경우 주당 1시간을 실시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초등학교 1-6학년에서 ‘공민과 도덕교육’이 생활 기능을 함양하는 교과로서 주당 수업 시수에서 영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국민교육’이 핵심 사건 기념일, 봉사 활동 학습, 학습 여행, 국민교육 퀴즈 등 여러 방식을 통해 학교 교육에서 행해짐으로써 다문화적 시민성 함양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그리고 다문화적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 방법에 있어서 ‘국민교육’에서는 ‘머리, 가슴, 손’을 통해 그리고 ‘공민과 도덕교육’은 인지, 정의, 행동을 통해 각기 통합적 접근을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도덕과교육이 다문화 사회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충분한 수업 시수 확보와 더불어 통합적 접근의 강조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사회적 응집성 제고를 위해 싱가포르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공통의 다문화적 유산을 사회통합교육의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새로 개정된 ‘공민과 도덕교육’ 교수요목에는 싱가포르의 독특한 다문화적 유산이 잘 반영되어 있다. 싱가포르는 자신보다 상위에 있는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봉사, 상이한 문화 인정, 가족 유대의 중요성, 효도를 해야 할 책임, 사회 속의 연장자 존중 및 배려, 젊은 세대 양육, 검약, 근면, 권위 존중, 사회 질서에 대한 신념 등을 다문화적 유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향후 우리 사회의 민족적·문화적 다양성이 심해질 경우 다양성과 통일성의 조화를 위해, 국가 공동체의 성원들이 합의하는 공통의 다문화적 유산들을 중심으로 도덕과에서 사회통합교육의 내용을 구성할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아울러 공통의 다문화적 유산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인격교육(character education)에서 핵심 가치의 선정을 위해 지역사회 주민들의 합의를 거치는 민주적인 과정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문화적 시민성 함양을 목표로 하는 싱가포르의 사회통합교육은 사회 변화보다는 현상유지 측면을 지나치게 배타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국민교육’의 목적과 목표 그리고 ‘공민과 도덕교육’의 목표나 내용 체계에 있어서 사회 변화를 위해 비판

적으로 참여하거나 활동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권리의 측면보다는 책임과 의무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고, 더 큰 공동체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과 헌신을 암묵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싱가포르의 사회통합교육은 정치적 의도가 가미된 사회화에 치우치게 되고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능력의 배양이 자칫 소홀히 취급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갖는다. 왜냐하면 싱가포르 정부가 외견상 상호 이해와 존중 및 공존을 강조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전체 국민의 싱가포르화(化)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 싱가포르 국민이 보여주는 다문화적 시민성은 국가 권력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지 적극적인 참여에서 나온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물리적 힘과 강제에 의한 다양성과 통일성의 조화는 엄격히 말해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교육의 이상이 아니다. 사회 구성원 각자가 서로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를 통합하려는 자발적인 동의와 참여에서 나오는 통일성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다문화 사회의 모습인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적 민주 사회인 대한민국에서의 도덕과교육은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국가 정체성 및 애국심의 함양을 강조하되, 그것이 단편 민족주의나 폐쇄된 국수주의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나아가 애국심이나 국가 정체성의 강화가 세계 시민성과 상충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왜냐하면 다문화사회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공동체로부터 종족,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지식·기능·가치·태도를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V. 맺음말

다문화 사회에서 다양성과 통일성의 조화를 모색하는 것은 국가의 생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중차대한 과제이다. 에치오니(Etzioni)는 동화는 불필요하게 동질성을 추구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중요한 부분을 포기하도록 강요한다고 지적하였다. 나아가 그는 끝없는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은 모두가 완전히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여러 공동체들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도 더 큰 단일의 공동체로의 통합을 목표로 삼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이범웅, 2007, p. 183).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통합을 위해 다문화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고 있는 상당수의 교육 프로그램들은 문화적 다양성의 인정과 존중보다는 한국 문화로의 일방적 동화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이 논문은 다문화 사회 기반 구축을 위한 한 방안으로서 싱가포르의 사회통합교육의 사례를 분석해보고, 우리나라 도덕과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었다. 싱가포르에서 학교교육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경제성장과 사회의 통합과 안정을 이룩하는 주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다인종·다문화·다종교 사회의 특징을 가진 싱가포르는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사회통합을 중시하는 학교교육을 통하여 세계 제일의 시민의식을 가진 국가로 성장하였다.

싱가포르의 사회통합교육은 국가 차원에서 싱가포르가 지향해야 할 이념과 가치들을 분명히 설정하고, ‘국민교육’과 ‘공민과 도덕교육’을 통해 그러한 이념과 가치들을 체계적으로 구현하고 있다는 점, 다양성을 보장하고 인정하면서도 사회통합을 강조함으로써 통합성 안에서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 싱가포르의 사회통합교육 체제로서 ‘국민교육’과 ‘공민과 도덕교육’은 다문화 시민성 함양을 위한 충분한 교육 시수와 더불어 통합적 접근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 사회적 응집성 제고를 위해 싱가포르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공통의 다문화적 유산을 사회통합교육의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다는 점 등에서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의 도덕과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싱가포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다문화 사회에서의 사회통합교육은 서로 다른 문화들 상호 간의 이해라는 틀 속에서 개별적인 문화를 포괄하고 아우르는 다문화적 정체성을 통해 배제와 분리가 아닌 다양한 문화의 공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이 싱가포르처럼 물리적 힘과 강제에 의한 다양성과 통일성의 조화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우리는 도덕과교육을 통해 사회 구성원 각자가 서로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를 통합하려는 자발적인 동의와 참여에서 나오는 통일성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참 고 문 헌

- 권동택(2005). 싱가포르 초등의무교육의 도입 과정과 시사점. **비교교육연구**, 15(4).
- 김경자(2008). 세계 초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의 동향: 한국, 미국,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한국 초등교육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
- 김이선 외 2인(2007).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1): 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대책**.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효종(2001). **아태지역 시민윤리교육의 성과 및 과제 연구**. 서울대학교 두뇌한국21 아시아태평양교육발전연구단 시민윤리교육팀 연구결과보고서.
- 오경석(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서울: 도서출판 한울.
- 오기성(2008). 학교 통일교육의 다문화교육적 접근. **교육과정평가연구**, 11(2).
- 이범웅 역(2007). **넥스트**. 고양: 인간사랑.
- 추병완(2008a). 다문화 도덕교육의 정립 방안. **초등도덕교육**, 제28집.
- 추병완(2008b). 싱가포르의 다문화 도덕교육. **도덕윤리과교육**, 제27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9. 2). 보도자료: 청소년 긴급뉴스 2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9. 6). 보도자료: 2008년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결과 발표.
- Chew, J. O. A. (1998). Civics and Moral Education in Singapore: Lessons for Citizenship Education?. *Journal of Moral Education*, 27(4).
- Halstead, M. (2000). Does Citizenship Education Make Moral Education Redundan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Values Education and Citizenship Education in The New Century. 9-11 June 2000.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 Han, C. (2000). National Education and 'Active Citizenship': Implications for Citizenship and Citizenship Education in Singapore. *Asia pacific Journal of Education*, 20(1).
- National Education Branch (2000). *Learning Journeys in National Education*. Singapore.
- Ministry of Education (1999). National Education. Retrieved October 30, 2009, from <http://www1.moe.edu.sg/ne>.
- Ministry of Education (2000). The Singapore Education Service: Moulding the Future of our nation. Retrieved October 30, 2009, from <http://www.moe.edu.sg/education/service>.
- Ministry of Education (2008). Desired outcomes of education. Retrieved October 30, 2009, from <http://www.moe.gov.sg/education/desired-outcomes>.
- Ministry of Information and the Arts (1998). *Singapore 1998*. SNP Printing Pte Ltd.
- Quah, Jon S. T. (1999). Singapore's Anti-Corruption Strategy: Some Lessons for South Korea.

Korean Corruption Studies Review, 4, December.

Tan, T. W. (1994). Moral Education in Singapore: a Critical Appraisal. *Journal of Moral Education*, 23(1).

Gudykunst, W. B. & Kim, Y. Y. (1984). *Communicating with strangers: An approach to intercultural communications*. New York: Addison-Wesley.

• 논문 접수 : 2009년 8월 24일 / 수정본 접수 : 2009년 9월 28일 / 게재 승인 : 2009년 10월 23일

ABSTRACT

Education for Social Integration in Singapore

- Focusing on the Implications to Moral Education -

Beong-Wan Chu

(Professor,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investigate the implications of the education for social integration in Singapore to the moral education in Korea. 'National Education' and 'Civics & Moral education' try to reach the harmony between diversity and unity in Singapore. 'National Education' is part of a holistic education. It aims to develop national cohesion, cultivate the instinct for survival as a nation and instil in our students, confidence in our nation's future. 'Civics & Moral education' as a separate subject matter for moral education in Singapore is designed to anchor students in sound moral principles. Education for social integration in Singapore focus on developing multicultural citizenship. It aims to develop a sense of emotional belonging and commitment to the community and nation. The Singaporean experience for coping with the challenges of multicultural age can be helpful for us to reorient our moral education.

Key words : Civics & Moral Education, Moral Education, Multicultural education, Multiculturalism, National education, Singapore